대규모 인터뷰 작업이 생성하는 집단적 관계성의 의미 - 미디어전시예술 〈70mK〉를 중심으로

오 세 현
성균관대영상학과/박사과정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2. 개체화론의 기본 개념들
 1) 개체화
 2) 전개체적 실재와 퍼텐셜
 3) 관개체성
3. 변환 작용으로서의 '인터뷰'
 1) 유비적 관계 맺기
 2) 위상학적인 인식의 개체화
4.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
 1) 정념-감동적 의미작용
 2) 윤리적 실재성의 구조화
5. 5.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대규모 인터뷰 작업을 통해 한민족이 가진 집단적 의식의 지형도를 담아내고자 하는 미디어전시작업 〈70mK〉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70mK〉는 개별 존재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배치와 형태로 편집, 구성된 영상전시물을 만들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분할된 프레임 속의 개체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개성을 드러내는 차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개체들의 내재성이 동시다발적이고 총체적인 이미지로 구현된 공시적이고 의식적인 집단적 타자의 형상이다. 인터뷰 영상들은 실제 존재자로서의 자신의 형태를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특유의 내재성을 구술적인 정보로서 발산한다. 〈70mK〉는 특정 집단이라는 동일선의 연장에서 이런 생명적 개체들의 형태와 정보를 미학적으로 구조화하여 새로운 개체화를 이루어낸다. 프레임 속의 존재자들, 각 개체들은 서로가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향한 전면 응시, 즉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가진 전개체적 실재로서의 관계성과 개성을 전달한다. 그것은 각 개체들이 보여주는 이질성과 차이의 반복적 배치와 구성인 동시에 그 이면에 집단적 동일성을 내포한 연쇄 작용이다. 〈70mK〉는 개성을 드러내는 인터뷰이들의 직접적인 이미지와 소리를 구조화하여 전시영상작품이라는 새로운 정보전달 방식의 형태를 이루어낸다. 이러한 점은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의 의미와 관개체적인 관계성의 의미와 과정을 은유하게 하고 지각하게 한다. 이것은 개체화라는 생성의 과정과 관계의 의미를 현대 기술과 함께 사유한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으로 설명하기 적합한 사례이다. 〈70mK〉가 구축한 전시공간은 특정 집단의 개체들 사이를 관통하여 연결되는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의미와 그 관계성을 미학적인 방법론으로 함의하고 있다. 시몽동은 개체화라는 과정에 대한 사유와 생성의 의미를 고찰하며 현대의 기술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긍정한 철학자이다. 〈70mK〉는 현대의 기술 매커니즘과 네트워크적 행위들이 매개되어 구조화되고 생성된 윤리적 실재성으로서의 새로운 개체이다. 그것은 기술이 협업 된 개체화 과정에 인터뷰가 어떻게 '변환' 작용으로 기

능하는지에 대한 미학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0mK〉가 보여주는 직접적인 이미지와 소리는 생명적 개체의 정보들이 운반, 증폭, 축적되며 발산하는 정보의 체계이자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풍경으로서의 새로운 개체이다. 그것은 복수의 개체화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전시예술작품에 내포된 개체초월적인 의미작용과 과정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기도 하다. 개체화된 준안정적 상태로서의 미디어전시예술은 작품을 관람하는 이들이 동일한 전개체적 실재를 인지하고 정념적 감정을 느끼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이끌어낸다. 〈70mK〉의 전시공간은 의미작용의 표상을 넘어 관개체적 집단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예비하는 무대가 된다.

주제어 70mK, 인터뷰, 개체화, 전개체적인 실재, 퍼텐셜, 관개체성, 시몽동

1. 서론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인터뷰를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뷰 영상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여 전시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전시예술 〈70mK〉가 가진 작업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70mK는 70 million Koreans, '7천만의 한국인들'을 뜻하는 줄임말로 남과 북, 7천만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디어연구소가 진행하는 대규모 인터뷰 프로젝트이다. 〈70mK〉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영상 데이터베이스 작업으로서 '7천만의 한국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의식 지형도를 그려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터뷰는 크게 여성, 통일, 환경, 교육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1]

〈70mK〉는 특정 집단에 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수집된 전체 인터뷰 영상들은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은 구성을 가진 영상으로 구성, 배치되어 편집이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개체 한 명의 영상 프레임이 하나의 벽돌처럼 연결된 구조를 띄게 된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영상이 확대되어 그 형상과 목소리의 정보가 강조된 뒤 다른 영상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구성의 변화가 생긴다. 각기 다른 타자들의 인터뷰 영상들이 큰 화면의 일부로 배치되어 구성된 전체 영상은 하나의 통합된 다양성을 지향한다. 최종 영상은 건물의 외벽, 벽과 같은 가벽 등의 전시 공간에 초대형 LED를 설치한 뒤 전시된다. 관람객은

[1] 트랜스미디어연구소 홈페이지 http://tmi.or.kr/wp/1410-2/ (검색일: 2019.4.14.)
홈페이지에 소개된 〈70mk〉의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일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한국제심포지움과 〈자유부인, 2012〉 공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을 진행하며 200여명 여성의 인터뷰로 첫 전시회를 가졌고, 올해에는 '청소년기의 통일의식'이라는 주제 아래 500여명의 대학생을 인터뷰하여 서울 메트로미술관에서 영상전시회를 개최했다. 7월에는 인천광역시의 협조 아래 북한 이탈주민, 사할린 동포, 이북5도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백령도 사람들'이라는 영상전시회를 정전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였다.
트랜스미디어연구소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계 거장이자 항공 사진작가인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인터뷰 프로젝트 〈7bO : 7 billion Others〉를 진행하고 있는 굿 플래닛 재단(Good Planet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개별적 존재들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형상과 직접 마주하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주장과 의견을 들으며 차이를 느끼는 동시에 서로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의식의 형상을 지각하게 된다. 그것은 대규모 인터뷰 작업을 통해 획득한 생명적 개체들의 형상과 정보로 구조화된 새로운 개체화(Individuation)의 결과물이다. 타자들의 이미지와 의견들로 구성된 전시영상은 그것을 마주한 또 다른 개별자로서의 존재가 관계맺고 새롭게 지각하는 관계성의 연속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영상작업인 〈70mK〉가 가진 작업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프랑스의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Glibert Simondon)의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려 한다. 시몽동은 구조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준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현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라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구축된 인간의 개체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양식적 발생 의미와 가치에 주목한 기술 철학자라는 점이다. 현대인들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특정한 고정점을 찾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추구를 위하여 파편화된 개인들과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대중성을 필요로 한다. 시몽동은 이런 상황을 고착, 이용하는 현대 기술 환경의 조건과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현대 기술들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한다. 동시에 개체화와 개체들 간의 소통 관계와 개체초월적인 집단성의 의미 생산 가능성을 사유한다.

미디어아트로서 〈70mK〉가 보여주는 기술적 시스템과 대규모 인터뷰를 통한 집단적 의식의 형상화 작업은 기술과 생성 철학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의 이론으로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시몽동은 생명적 개체가 내재적인 준안정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참여 활동을 통해 정신적 개체화와 집단적 개체화 이른다는 관개체성(transindividualité) 개념을 구체화 시켰고, 이런 점은 〈70mK〉가 인터뷰라는 방법론을 통해 생성하는 작업의 과정과 의미를 밝히는데 적절한 이론적 배경이자 개념을 제공한다.

독일『두덴(Duden)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인터뷰(interview)라는 단어의 어원은 “서로 (짧은 시간 동안) 봄, 해우, 만남”을 뜻하는 프랑스어 ‘entrevoir’이다.[2] 인터뷰의 유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인쇄 매체의 발달로 취재와 보도를 위한 저널리즘의 기술로, 사법제도 내에서는 법적인 심문을 위한 기술로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왔다. 인터뷰와 관련된 많은 서적과 연구 자료에서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질문하는 자인 인터뷰어(interviewer)와 인터뷰의 대상자인 인터뷰이(interviewee)의 ‘만남’을 꼽는다. 문자 그대로 “상호적인 관점(inter view) 즉,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해 대화하는 두 사람의 관점을 교환하는 것”[3]으로 정의하는 것도 바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뷰라고 하면 떠올리는 인터뷰이의 모습과 목소리로 이루어진 시청각 영상은 동시 녹음기 같은 음향 장비의 발전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터뷰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로도 점차 그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유튜브, 트위치, MCN(MultiChannel Network)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전방위적 영상 서비스 산업과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 네트워크 시대인 오늘날 인터뷰는 그 활용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록 매체로서의 촬영 및 음향기기는 소형화되고 있고, 통신과 네트워킹, 카메라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포터블 기기들이 대중적인 보급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정보와 이미지,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로드 및 공유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개별 인터뷰, 담화, 일상적 대화 같은 구술적 영상과 정보들이 스트리밍되고 있으며 미디어를 비롯한 관계망 사이트들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인터뷰를 비롯한 이런 일상적이고 구술적인 영상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타자들의 내밀한 단편들과 의식을 보여주는 창구로서 현상학적 특이점을 확인하

[2] 미하엘 할러,『인터뷰 -저널리스트를 위한 핸드북』, 강태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34.

[3] 스테이나 크베일,『내면을 보는 눈 - 인터뷰』, 신경림 옮김, 하나의학사, 1998, p.17.

고 지각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런 이유로 인터뷰는 학술 영역에서도 질적·양적연구의 방법론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전통적으로 인터뷰를 규정짓던 대상 간의 물리적 '만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으며, 새로운 양식화와 보다 다양한 미학적 방법을 모색·변주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매체의 경계와 장르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는 현대미술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터뷰의 방법론과 미학을 차용하고 있다. 작가 개인이 인식하고 지각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주관적 예술형태로서 여전히 작가주의적인 인장이 강조되는 미술계에서 타자의 시선과 견해를 전면에 배치하는 인터뷰의 활용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70mK〉와 같이 대규모의 개별적 인터뷰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되는 전시는 단순히 타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넘어서 개체초월적인 집단적인 의식의 연결 지점을 지각할 수 있도록 관람객에게 총체적인 이미지와 소리의 정보를 제공한다.

영상학과 관련한 학술 영역에서는 방송 혹은 극장용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내용, 인터뷰를 중요하게 사용한 감독론과 관련된 연구 자료에서 인터뷰 방법론이나 관련된 언급 및 논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다큐멘터리에 삽입된 인터뷰의 대상에 대한 정보, 구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뷰에 대한 미학적 탐구나 방법론 등 인터뷰 자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사례를 남승석(2016)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남승석은 인터뷰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에롤 모리스 감독의 미학을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그의 연구는 인터뷰의 유래와 정의, 범주 등 기본적인 관련 자료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모리스 감독이 대상의 정신적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 수행하는 인터뷰 방법론과 시적 인터뷰의 연출, 감독이 직접 개발한 인터뷰 장비인 '인테로트론' 등 거장의 인터뷰 방법론과 미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인터뷰 자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사례에서 인터뷰를 중심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방송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내용,

둘째 극장용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내용, 셋째 기타 매체적 특징으로서 언어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 방송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승엽(2001)은 TV 다큐멘터리에서 현실성과 호소력 증대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내레이션과 인터뷰의 관계와 정의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주갑(2012)은 TV 휴먼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시기별 인터뷰 사용 빈도와 형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극장용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창재, 심지현(2018)은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를 중심으로 TV 다큐멘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담화형 인터뷰를 서브플롯으로 이용하는 극장용 다큐멘터리에서의 인터뷰 연출 방식과 의미, 미장센 방법론 등을 고찰한다. 강태호(2009)는 다큐멘터리 〈블랙박스 독일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많이 삽입된 다큐멘터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고 개략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조현준(2013)은 인터뷰의 연출과 편집이 다큐멘터리의 주관성과 서사 진행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독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인터뷰와 등장하지 않는 인터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활용과 방법론을 고찰한다. 김동현(2013)은 모크다큐멘터리 〈포스카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뷰 단독 쇼트로는 시간성을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시하고, 앞뒤에 어떤 쇼트를 연결하는지에 따라 인터뷰가 과거와 현재 같은 명시성을 갖게 되고 시간 장면화가 가능함을 기술하고 있다. 기타 연구내용으로 조국현(2016)은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매체성”을 인터뷰가 가진 매체적 변이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현강(2008)은 인터뷰가 가진 ‘매체 담화’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그 담화의 내용과 전략, 의미를 분석한다. 인터뷰와 관련한 이런 연구사례와 함께 주목할만한 또 다른 외부 전시행사로 아르코 미술관에서 2011년도 첫 번째 기획전인 〈인터뷰 Interview & artists as an interviewer〉전[4]이 있다. 이 전시는 비디오아트의 등장과 함께 중요한 방법론이 된 ‘인터뷰’ 작업의 “내밀한 예술적

[4] 인터뷰를 전면에 내세운 기획전으로 참여 비디오아트 작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홍석, 나현, 믹스라이스, 박경주, 이수영, 이영호, 이진준, 임흥순, 정연두, 조혜정, 천경우, 태이, 플라잉시티

의미와 담론을 드러내고자" 기획되었다.[5]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타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전면에 배치하여 전시한다.

2)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전시예술작업인 〈70mK〉를 중심 사례로 인터뷰 작업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생성하는 작업의 의미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70mK〉는 대규모의 개별 인터뷰라는 수행적 네트워크 행위들을 통해 집단적인 의식의 지형도를 그려내려 한다. 대상들은 인터뷰라는 외부 참여 활동을 통해 내재성을 발현하게 되고, 거대한 디스플레이 전시 영상으로 구조화된 인터뷰들은 동시다발적이고 총체적인 개체화 과정을 직관적으로 은유하게 한다. 각 개체들의 인터뷰 영상들은 각기 다른 형상과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실재성을 지닌 하나의 통합된 작품으로 새롭게 개체화된다. 이것은 영상 촬영 및 네트워크, 전시 시스템 같은 현대의 기술이 중요한 협업적 매개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70mK〉는 사유의 과정과 집단적 의식의 관계성을 대규모 인터뷰 작업이라는 네트워크적 행위와 편집, 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게 통합된 이미지와 구술적 정보의 총체적인 상은 비가시적인 집단적 관계성을 직관적인 이미지의 총체적 형상으로 구조화한다. 인터뷰 영상들이 계속해서 드러내는 차이와 반복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대상들 사이를 관통하는 집단적 동일성의 연결 지점을 지각하게 하고 사이버네틱스의 철학적 사유를 전시공간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인터뷰 중심의 수행적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시몽동 개체화론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의 내용을 진행하려 한다.

연구는 시몽동 개체화론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70mK〉 작업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한다. 첫 번째 장인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표를 먼저 밝힌다. 본문을 시작하는 두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시몽동이 발전시킨 개체화론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고 〈70mK〉의

[5] 오광수, 『인터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1, p.9.

전반적인 작업 과정과 의미 생성 내용에 적용하며 기술하였다. 시몽동은 개체화라는 새로운 위상학적 차원으로 형태를 갖추어가는 운동을 '변환'(transduc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신적이고 직관적인 절차로서 '변환'은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귀납적, 연역적인 방법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유비적(analogique) 작용이다. 〈70mK〉의 대규모 인터뷰와 인터뷰 영상의 구성은 개체화라는 새로운 형태 부여의 변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특정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해소이며, 다른 개성의 타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발견들과 그 속에서 관계성을 찾는 변환의 유비적 관계성에 의한 작용이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 인터뷰 작업이 가지는 변환작용의 내용을 밝히고 그 안에 담긴 유비적 관계성과 변환과정의 위상학적인 변화, 인식의 기능적인 의미 실현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관개체성이라는 초월적인 관계성은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가 모두 일어났을 때 발생한다. 시몽동은 이런 관개체적 관계로의 변환작용이 정념성(affectivité)과 감동성(émotivité)을 매개로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네트워크적 행위와 기술로 구조화된 전시영상이라는 개체화에서 고대의 마술적 신앙에서부터 이어지는 일종의 종교성이 있다. 그것은 실존하는 존재자의 체계 속에서의 생성에서 요구되는 반성적 변환작용이라는 윤리성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네 번째 장에서는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그 하위 챕터에 변환 작용의 매개인 정념-감동적 의미작용과 반성적 변환 작용으로서 윤리적 실재성의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현대 기술사회에서 타자의 관점을 공유하고 획득하는 수행적이고 인식론적 행위로서 인터뷰라는 방법론의 사용과 활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주요한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관심도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몽동의 기술과 생성철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대규모 인터뷰 작업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시영상작업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터뷰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

2.개체화론의 기본 개념들

1) 개체화

시몽동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은 존재를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그 존재가 생성되는 개체화(individuation)라는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는 점이다. 개체화는 하나의 사물, 혹은 생명적 개체로서 파악되는 하나의 준안정적인 상태로서 실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존재의 생성으로서 개체화는 하나의 사실이다."[6] 개체화론은 형상과 질료, 정신과 육체 등 이원론적이고 이항대립적 관계 도식과 가시적인 실체론에 입각하여 사유되어 왔던 서구 철학의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시몽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도식론을 비판하는 이유도 개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진 형상, 질료의 단순한 결합이나 실체라고 보는 선험적 형식의 사고가 개체화라는 과정과 생성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체화는 선행적으로 구성된 분리된 항들로서 미리 존재하는 형상과 질료의 결합이 아니라 퍼텐셜들로 가득한 준안정적 체계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해소이다. 형상. 질료, 에너지는 체계 안에 선재한다. 형상도 질료도 충분하지 않다."[7] "개체화 연구를 통한 시몽동의 정보 개념은 자연스럽게 개체화가 "존재의 생성"이고 존재는 곧 생성임을 밝혀준다."[8]

〈70mK〉는 생명적 수준의 개체가 자신의 준안정적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터뷰라는 외부 참여 활동을 통해 생성하는 새로운 개체화의 결과이다. 그 과정과 내용은 "참여로서의 개체에 내적이고 외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생명적 개체화 이후에 오는 개체화들에 의해 구성된" 개체이다.[9] 그것은 개별적인 개체화를 넘어서는 관계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품고 있다.

6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39.
7 위의 책, p.47.
8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216.
9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51.

2) 전개체적 실재와 퍼텐셜

전개체적 실재(réalité préindividuelle)는 기존 서구 철학의 선험적 존재론을 비판하고 생성의 과정과 의미를 사유했던 시몽동 이론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생성을 위한 수많은 가능성의 촉매인 퍼텐셜(potential)[10]을 내재하고 있는 질료와 형상, 개체화 이전의 근원적 세계이다. 시몽동에 따르면 "최초의 실재는 전개체적이며, 개체화의 결과로서 이해된 개체보다 더 풍부하다. 전개체적인 것은 연대기적이고 위상학적인 차원성의 근원이다."[11] 퍼텐셜에너지라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힘은 전개체적 실재라는 준안정적인 상태이자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극으로 작용한다. 결국 "전개체적 실재는 자신을 특징짓는 모든 퍼텐셜들에 의해 자극"[12]되어 개체들을 발생시키고, 개별화시키며 각각의 개체들에 서로 다른 개성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 개체화된 물질, 혹은 생명적 개체들은 각자가 이질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지속시키는 근원적인 동일성으로서 전개체적 실재가 내재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개체들에게 내재된 이런 "전개체적 실재의 퍼텐셜리티는 한 번의 개체화로 모두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체를 통해 운반되면서 새로운 개체화의 발생적 원천으로 존재한다."[13]

〈70mK〉의 대규모 인터뷰 작업은 퍼텐셜이라는 생성과 변화의 에너지를 보다 직접적인 영상의 형태와 배치로 지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의견과

---

10 시몽동은 그의 저서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1부 물리적 개체화에서 '퍼텐셜 에너지와 구조들'이라는 챕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퍼텐셜과 관련하여 해당 저서의 역자인 황수영의 아래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퍼텐셜(potentiel)은 시몽동의 많은 다른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차용한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더러 잠재에너지로 새기는 경우도 있지만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몽동은 퍼텐셜을 종종 퍼텐셜에너지 또는 에너지퍼텐셜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운동에너지와 대립하는 의미에서의 잠재에너지가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힘에 가깝다. 또 시몽동은 이 단어를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잠재태(virtualite)와 구별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퍼텐셜이라는 말을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시몽동, 2017, p.41)

11 위의 책, p.284.

12 위의 책, p.50.

13 김재희, 「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 『범한철학』 88권, 2018, p.197.

생각의 차이들 속에서도 집단적인 의식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고 변화가능한 각 개체들의 퍼텐셜 에너지가 통합된 형태로 구조화되고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퍼텐셜 에너지는 정지와 운동,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존재의 준안정성(métastabilité)을 확보해 주는 개념이다."[14]"생성은 더 이상 변질의 연속이 아니라, 퍼텐셜에너지의 해방을 통한 준안정적 상태들의 연쇄이다.

이 퍼텐셜에너지의 작동과 실존은 이 상태들을 구성하는 인과성의 체제의 일부를 이룬다."[15] 〈70mK〉가 다루고 있는 인터뷰 대상들은 단순히 동일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관계 맺기의 인과적 체제를 가지고 생성된 준안정적 상태의 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준안정적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인터뷰라는 참여 행위를 통해 내재성으로서 퍼텐셜을 드러낸 영상들이 새롭게 구조화되어 개체화 된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정신적인 초상들이 통합된 새로운 개체이다. "우리가 존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에너지의 집합체이다."[16]

〈70mK〉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창작자 혹은 인터뷰어들, 그리고 기술적 대상들을 이용한 조직적이고 네트워크적 행위인 인터뷰들은 이 전시영상작업의 중요한 퍼텐셜로 작용한다. 존재에 대한 실체적인 기록으로서 인터뷰라는 물리적이고 수행적인 행위들이 개체화 과정의 방법론이자 퍼텐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점이 〈70mK〉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생명적 개체들의 실재로서의 형상이 거대한 벽 위에 디지털 신호라는 비실체적인 상으로 구조화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리적 전시공간 속에 현대의 기술 네트워크의 비물리적 가상성이 유연하게 투영된 것이다. 현대의 기술 네트워크도 미디어전시예술이라는 개체화를 매개하는 대상이자 기술 환경 자체도 일종의 퍼텐셜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화하는 형상은, (...) 언제나 그 형상의 일정한 물질적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 이 형상은 형상 속에 포함된 퍼텐셜 에너지로 하여금 물질을 구조화시킨다."[17]

---

14 김재희, 「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93권, 2011, p.236.
15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p.620-621.
16 위의 책, p.621.

〈70mK〉는 특정 집단이 가진 관계성과 그들 사이를 관통하는 전개체적 실재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터뷰라는 네트워크적인 행위를 통해 개별적 존재자들이 가진 시선과 타자성을 획득한다. 대규모의 인터뷰 영상들은 그들의 형상과 주장하는 의견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생명적 수준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개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인터뷰이로서의 이 개체들은 각자가 연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관람객을 향해 있는 개체들은 거대한 모자이크 영상 중의 하나로서 각자의 프레임에 갇힌 채 전면을 응시하며 관람객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이런 모자이크 된 프레임과 구조화된 영상은 각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연대보다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전개체적 실재와 개성, 차이를 드러내지만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집단적인 정신성을 동시다발적인 방식으로 총체화 해서 보여준다. 이것은 개체화 과정의 의미와 퍼텐셜리티를 사유하게 하고, 각 개체들이 가진 전개체적 실재성이 어떻게 관계 맺고 관통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그것은 관개체적 관계를 표상하는 의식의 벽으로 작용하는 전개체적 실재로서의 구조물이다.

개체들의 인터뷰라는 각각의 프레임 영상들은 전시영상이라는 거대한 개체화의 질료로서도 기능한다. “질료는 현실화 되는 퍼텐셜에너지를 자신과 더불어 실어 나른다.”[18] 〈70mK〉는 개체이자 실존적 존재자, 질료로서 개별 인터뷰 영상들이 전달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과포화 된 다수의 형상들이 전달하는 개성과 차이로 인해 긴장된 준안정적인 실재임을 알려준다.

3) 관개체성

관개체성(貫個體性, transindividualité)은 시몽동의 개체화론 이론을 통해 철학적으로 구체화된 개념이다. 시몽동은 그의 박사 논문이자 출판 저서인

17 위의 책, p.17.
18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76.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2부 '생명체들의 개체화'에서 관개체적인 것의 발생 과정으로 정신적인 개체화와 집단적인 개체화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생명적 개체화의 수준에서 정신적 개체화와 집단적 개체화가 함께 일어날 때 개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관통하는 관계성이 발생한다. 시몽동은 이런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개체화 사이에서의 관계, 또는 인간이라는 개체화의 의미와 관계를 사유하고 해명하기 위해 관개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의 전개체적인 실재가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영역에서 정서적 교감이 발생하고 연합하는 개체화이다. 그것은 전개체적 실재라는 가능성의 포텐셜에서 생성된 이질적 개체들이 특정한 교류나 직접적인 관계 맺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체들 사이를 가로질러 연결되는 동일성의 실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집단적인 것의 형태로 나타난 개체화는 개체로부터 집단(groupe)에 속하는 개체를 만들어 낸다."[19] 관개체성은 이런 집단 형성이 중요하다.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집단이 정념성에 의거한 정신적 영역에서 전개체적 실재를 지각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 단위로 개체화를 될 때 형성된다. 관개체적인 관계의 발생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이나 개체상호성(interindividualité)과 같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집단 안에 분리되어 있는 개체들 사이의 연대나 소통 관계가 아니라, 개체들에 내재하고 있던 전개체적 실재성이 개체들을 가로질러 연결되면서 정신성과 집단성이 동시 결정화(syncristallisation)할 때 실현된다."[20]

"trans-"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두사이다. 해석의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횡단을 말하거나, '무엇 또는 어떤 상태에서의 초월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21] 이야기 할 수 있다. 'trans-'는 그 다의성 만큼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현대 기술 문명의 대표적인 접두어이다. 시몽동에 의해 구체적인 철학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transindividualité'의 경우에도 그 단어의 번

19 위의 책, p.51.
20 김재희, 「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 『범한철학』, 88권, 2018, pp.197-198.
21 변혁, 「창간사: 'trans-' 담론의 문화사적 이해」, 『trans-』 1권, 2016,

역과 관련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 기존 한국의 연구사례들에서는 주로 '개체초월성'으로 번역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인 황수영과 김재희가 각각 번역한 시몽동의 저서들인『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에도 일관되게 '개체초월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그들이 발표한 학술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최근에 관련 연구를 발표한 강진숙(2018)의 사례에서도 같은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trans-'가 지닌 "초월"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각 개체들 사이를 "관통하는", "횡단하는", "가로지르는"이라는 뜻을 가진 "traverser" 의미와 "(새로운) 형태의 변화(부여)", (위상학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뜻하는 "transformer"의 의미를 해석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 되었다. 그래서 "초월"을 강조하는 "개체초월성"보다는 "관통하는", "관계성",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뜻하는 "관(貫)"을 강조한 '관개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김재희 연구자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과 김화자 연구자가 2013년에 발표한 논문의 용례와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22]

---

22 김재희는 본인이 번역한 시몽동의 서적『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기타 연구 사례에서 '개체초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2018)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2011)에서는 '관개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관(貫)개체성transindividualité은 개체들 사이의 관계맺음을 특징짓는 시몽동 특유의 개념인데, 이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이나 간(間)개체성interindividualité과 같이 서로 분리된 실체인 개체(주체/주관)들 사이의 소통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화를 통해 개체들을 산출한 이후에도 소진되지 않은 전개체적인 퍼텐셜이 개체들의 저변을 여전히 관통하고 있으면서 준안정적인 개체들의 변화와 집단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관계항인 개체들 바깥에서 (초월적으로) 개체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을 가로지르며(내재적으로) 관계항인 개체들 자체의 변화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맺음으로 개체들을 묶는다는 의미에서 '초'개체성보다는 '관'개체성이 적합한 번역이라 여겨진다."(p.234)
시몽동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자인 김화자의 경우 '관개체적'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기존 연구에서는 '초개체성(초개체적인 것)'으로 번역하여 사용했으나,「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2013)라는 논문에서 '관개체성(관개체적인 것)'으로 용례 바꾸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석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시몽동의 개체화론에 나타난 개체화 과정에서 심리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를 의미하는 'le transindividuel'는 개체가 제기한 문제들의 해(解)를 자기자신과의 내재적 관계의 중심에서 벗어나 외재적인 사회의 집단적인 관계의 차

3. 변환 작용으로서의 '인터뷰'

1) 유비적 관계맺기

시몽동은 그의 박사논문이자 주저서인『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서론에서 '존재'(l'être)의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존재는 어떤 변형도 불가능한 정적인 상태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소유하지 않는다. 존재는 변환적 단일성(unité transductive)을 갖는다."[23] 인터뷰이로 참여하는 개별자들은 서로가 이질적인 존재자이며 각자가 하나의 준안정적인 체계이다. 이들은 완전히 양립하거나 화합할 수 없는 불균등한 실재들이고 이들 사이에는 긴장과 여러 문제 상황들이 자리한다. 〈70mK〉가 완성한 이미지와 정보의 총체적인 형상에서 느끼게 되는 구조화 혹은 미학적 방법론의 극단적인 부분은 "변환작용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역동성은 상전이 하면서 자신을 구조화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전개 시키는 이질적 존재의 체계의 원초적 긴장으로부터 나온다."[24] 인터뷰는 이런 원초적 긴장 관계에 있는 개체들의 이질적인 입장과 개성, 불균등한 실재들을 기록하고 수집한다. 그것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긴장과 불균등함의 차이이다. 인터뷰어는 인터뷰이라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원초적 긴장과 불균질한 실재를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유도하면서 개인이 가진 새로운 차원의 문제와 정보, 감동의 영역을 발견한다. 동시에 인터뷰

원에서 찾기 때문에 'le transindividuel'의 'trans'는 개체화된 것의 "개체화 넘어(au-delà, trans)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체의 일부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전개체적인 실재성을 수반한 새로운 개체화로서 사회적인 것(le socius)은 타자들과의 구축적인 관계와 작용에 의해 새로운 현존의 양태로 생성된 '집단(le collectif)'을 일컫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과 차이나며 구성된 개체들 사이를 관통하는 관계이지만, 상호 개체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trans'를 '초월'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초'보다는 김재희가「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234, 각주 2) 에서 '관(貫)'으로 번역했듯이, 개체에 연결된 전개체적인 것((le préindividuel)의 수반으로 인해 개체들 사이를 관통하는 관계 맺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관(貫)'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전의 논문들에서 필자가 'le transindividuel'을 '초개체적인 것'으로 번역했던 것을 '관(貫)개체적인 것'으로 수정한다."(p.222)

23 질베르 시몽동,『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56.

24 위의 책, p.59.

행위를 진행하며 정보의 유기적이고 네트워크적으로 조직화와 범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화와 구조화 과정을 통해 특정한 순간과 불균등한 순간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 그것이 〈70mK〉에서 인터뷰가 가진 변환작용의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변환 작용은 "유기적 개체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것은 정신적 작용일 수 있으며 실제적인 논리적 과정일 수 있다."[25] "인식의 영역에서 그것은 귀납적이지도 않고 연역적이지도 않은 진정한 발명의 행보를 정의한다. 즉 하나의 문제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차원들의 발견에 상응하는 변환적 행보이다.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유비적(analogique) 작용이다."[26]

〈70mK〉가 진행하는 대규모의 개별적 인터뷰 작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관적이고 동일한 방식과 구조로 진행된다. 이것은 인터뷰라는 유비적인 작용의 방법론과 미학적인 패러다임의 형식적인 모델로서 기능한다. 인터뷰어와 인터뷰는 카메라를 통해 "퍼텐셜 에너지로 풍부한 준안정적 시스템 안에서 솟아나는 해(解)"를 드러내고 그 해에 대한 가시적 지형도로서의 물리적 개체화를 구축해 나간다.[27] 시몽동은 "황의 결정화라는 예에서, 구조화하는 결정 씨앗(현실적인 구조)과 구조화될 비결정 환경(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조) 사이에, "유비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있어야 결정화가 촉발되는데 바로 그 관계 짓는 작용이 정보"[28]라고 밝힌다. 여기서 구조화하는 결정 씨앗은 네트워크적으로 구조화된 인터뷰 행위들과 개별 영상들로 볼 수 있고,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구조체로서의 비결정 환경은 편집, 배치된 거대한 전시 영상과 공간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체화로의 결정화를 촉발하는 정보는 인터뷰를 통해 기록된 타자의 형상과 소리이고, 그것은 집단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전개체적 실재를 인식하는 정신적인 감응을 이끌어낸다. 의식의 지형도라는 관개체적 관계를 지각하게 하는 작용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구술적인 정보와 존재자로서의 개체의 이미지라

25 위의 책, p.59
26 위의 책, p.60.
27 김재희, 「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93권, 2011, p.241
28 위의 논문, pp.247-248

는 시각 정보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개체들의 유비적인 구조물에서 비롯된다. 그 관계 작용의 핵심이 인터뷰를 통해 구축한 다양한 정보들이다. 이질적인 정보가 하나의 집단성을 가진 의식지형도로 형성되는 것은 이런 인터뷰 작업을 통해 결정씨앗들이 변환작용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변환적 방법은 진정으로 유비적인 추론의 적용"이다.[29] "진정한 유비는 연관들(rapports)의 동일성이지 동일성의 연관이 아니다. 사유의 변환적 과정은 사실상 연관들의 동일성들을 세우는 데 있다. 이 연관들의 동일성들은 유사성 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차이들 위에 기초한다."[30]

2) 위상학적인 인식의 개체화

"변환(transduction) 작용은 진행 중인 개체화를 의미한다."[31] "변환은 그 자체로는 퍼텐셜 에너지에도 현실화된 에너지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떤 퍼텐셜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현실화하는 매개적 작용"[32]을 일컫는 시몽동 특유의 사유방식이다. 이것은 유비적인 인식론의 방법이지만 타자에게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다시 특정한 영상의 형태로 매개하는 인터뷰의 구조화된 방식과 행위에도 적용된다. 변환작용으로서의 인터뷰 작업들은 "개체화하는 형태 갖추기의 작용을 동시에"[33] 구축하는 작동 원리이기도 하다. "관계, 정보, 변환은 차이와 불일치를 매개하는 작용(이를 통해 구조－개체－형태를 발생시킴)으로서 비실체적인 실재성을 지닌다. 시몽동은 이 변환작용이 존재의 생성과 개체화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존재론적 사태라고 본다."[34] 〈70mK〉라는 거대 전시영상으로서의 개체화에서 대상들의 관계와 정보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는 인터뷰 행위는 각 개별 대상들

29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203.
30 위의 책, p.202.
31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216.
32 김재희, 「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93권, 2011, p.250.
33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21.
34 위의 논문, p.250.

간의 이질적인 개성을 매개하는 작용을 한다. 네트워크적 행위로서 인터뷰 작업들의 수행은 개체화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인 존재론적 이벤트이다.

"변환 작용이란 마치 과포화 용액이 결정 씨앗의 퍼텐셜 덕분에 결정체가 되는 것처럼[35], 구조적인 씨앗에 입각해 점점 장(場)을 획득해 나가는 구조의 전파를 의미한다."[36] 개별 인터뷰 영상들은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새로운 정보의 체계를 구조화 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 위상학적인 차원의 새로운 개체로 변환된다. 그것은 유비적 관계들의 정보와 이미지의 편집을 통해 새로운 관계성을 인식하는 거대한 초상으로 은유 된 개체화이다.

"변환의 과정은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구조를 위상학적으로 '형태 부여하는'(in-former) 운동인바, 이 동일한 운동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현시하는 것을 인식 기능적으로 '알린다.(informer)는 것 그리고 그 연합된 전개체적 하중에 따라 그것이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전개체적 존재의 지평을 알린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37]

4.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

1) 정념-감동적 의미작용

"정념성과 감동성은 존재자 자신과의 공명을 구성하고, 개체화된 존재자를 그것에 연합된 전개체적 실재에 연결시킨다."[38] "개체의 내밀함은 순수 의식이나 유기적 무의식의 수준에서 탐구되어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념-감동적인 잠재의식의 수준에서 탐구되어야"[39] 한다. 시몽동은 정념성(affectivité)을 관개체적 관계로 이행하는 '정신적-집단적' 개체화의 주요

35 위의 책, p.22.
36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216.
37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22.
38 위의 책, p.54.
39 위의 책, p.467.

한 변환 작용으로 본다. “생명적 개체화로부터 정신적-집단적 개체화로의 이행, 다시 말해 생명적 개체로부터 개체초월적 주체로의 변환은 특히 ‘정념-감동성’을 매개로 이루어진다.”[40] 인터뷰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 정보를 뱉어내면서 내재성을 드러낸다. 이야기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집단성의 의식과 유비적 관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거나 상기하게 되고 심리적 정념성에 다가가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 잠재의식의 층이 있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념성이자 감동성(émotivité)이다. 이 관계적 층이 개체성의 중심을 이룬다.”[41]

“정념-감동적인 모든 운동은 판단인 동시에 사전 형성된(prefonnee) 행동이다. (…) 그것의 실재성은 자신의 항들과 관련하여 자기-위치화(auto-position)라는 가치를 소유하는, 관계의 그것이다. 정념-감동적인 극성화(polarisation)는 그것이 하나의 결과물인 한에서 또는 지향성(intentiOMalite)을 포함하는 한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양분을 공급 받는다. 그것은 자기-위치화인 동시에 타자-위치화(hetero-position)이다.”[42]

〈70mK〉는 각각의 인터뷰 영상들이 정념적인 의미작용으로 위치시킨 타자성인 동시에 그것은 인터뷰 대상들과 카메라 뒤에서 작업 중인 개체들이 자신의 정념-감동성을 위치화 시키는 의미 작업이다. 인터뷰이가 인터뷰를 통해 느끼는 정념성과, 인터뷰어가 느끼는 정념성의 접점에서 새로운 구조화가 발생한다. 전시의 기획자이자 인터뷰어는 정념성과 감동성의 의미 작용을 편집의 구성과 배치를 통해 위치화 한다. 그것은 정서적 정보의 증폭을 일으키고 새로운 타자로서 관람객과의 연결에 더 큰 정념적, 감동적인 의미작용을 만들어 낸다. “시몽동은 개체들이 정감적-정서적인 것을 통한 자신과의 내재적 객체화와 지각에 의한 외재적 객체화라는 양립적인 상호관계에서 집단의 개체화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한 집단의 개체성으로서 관(貫)개체적인 관계는 “정감적-정서성(affectivo-émotivité) 체제”에서 수립될 수 있다.”[43]

40 김재희, 「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 『범한철학』 88권, 2018, p.198.
41 위의 책, p.467.
42 위의 책, p.466.

"개체의 삶은 그것이 통합인 한에서 분화이다. (…) 선택된 것은 선택의 대상이기보다는 선택 자체이다. 정념적 방향 짓기는 한 존재자의 선택이, 자신의 반응성(réactivité) 속에, 말하자면 자신 위에 거점을 두는 관계적 활동 전체를 구성할 때 그 존재자 내부에서 관계적 힘을 잃는다. 진정한 분화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은 무엇보다 불연속적이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주체에 있어서 연속적 선택은 사실상 선택과 정보의 혼합물이다."[44]

인터뷰이가 인터뷰를 통해서 새롭게 지각하는 정념성과 감동성은 생명적 수준의 개체가 새로운 위상학적 변화를 겪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 정념성과 감동성이 실질적인 집단 구성을 향해 작용하는 순간은 개체화된 전시작업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통해서이다. 관개체적 관계의 집단성을 이미지의 구조와 소리라는 비물질적 상으로 배치한 예술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은유하는 집단성의 관계를 지각하게 된다. 그것은 존재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재된 전개체적 실재에 공명하는 순간이다. 관람객이라는 이질적인 타자는 전시작품을 통해 새로운 집단의 관계성으로 이행하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

2) 윤리적 실재성의 구조화

철학자로서 시몽동은 단순히 미학적인 작업을 넘어서 윤리성과 기술성을 함께 사유한다. "인간은 기술성의 발생 이전에 비-기술적인 마술적 세계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술성은 인간과 세계의 이 원초적인 마술적 관계가 상전이 하면서 종교성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다."[45] 인터뷰를 위한 만남에서 존재자로서의 개체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주체로서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타자의 실재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주관성과 그것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성과 자기 검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43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225.
44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308.
45 김재희, 「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 『범한철학』 88권, 2018, p.207.

윤리적인 실재의 문제는 생성의 과정에서 행위들의 배열과 체계 안에서 일어난다. “행위의 가치는 그것이 함축하는 규범을 따라 보편화될 수 있는 특징이 아니라 생성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네트워크(réseau) 속에 그것이 통합되는 유효한 실재성이다. 문제는 행위들의 연쇄가 아니라 바로 네트워크이다. 행위들의 연쇄는 네트워크의 추상적 단순화이다. 윤리적 실재성은 바로 네트워크로 구조화된다.”[46]

미학적인 방법론만으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와 접근에 반성적 변환 작용을 완수하기 힘들다. 〈70mK〉가 내포하고 있는 집단성의 민족적, 정치적 지점은 작품의 본질적인 질료이자 핵심적인 윤리적 행위인 인터뷰에서부터 윤리적인 방향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작용한다. “시몽동은 미학적 사유가 인간 기술들과 사회, 정치적인 사유들 사이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데 반해, 기술적 사유와 종교적 사유가 각각 양분된 이차적 대립의 수준인 철학적 사유는 인간 기술과 정치적 사유를 중립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47]

“물리적 실재에 대한 분석은 인식의 조건들 자체에 대한 반성과 분리될 수 없다.”[48] 기본적으로 물리적 존재자로서 개인에 대한 인터뷰 작업을 시도했을 때 그것에 수반되는 윤리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카메라의 시선은 쉽게 폭력을 야기하기도 하고, 기계와 기술적 매커니즘은 권력의 작동구조에 영향 받기 쉽다. 시몽동은 “철학적인 반성이 기술적 사유, 종교적 사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유의 잇따른 단계의 연속성을 유지해야만 기술은 자연적 세계에 적용된 기술들로부터 인간적 세계에 관련된 기술들에 이르기까지 유지”[49]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행동으로부터 이끌어 낸 규범성을 행동 자체 안에 도입할 수 없는 비반성적 의식은 심리적 개체를 구성하는 이 변환성의 영역을 실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50] 결국 관개체적 집단

46 위의 책, p.635.
47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233.
48 위의 책, p.452.
49 위의 논문, p.234.
50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역, 그린비, 2017, p.525.

의 의미와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시예술작품의 개체화는 이런 네트워크로 구조화 된 윤리적 실재성을 가지지 못하면 보편화 될 수 없다. 그것은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를 거쳐 특정한 집단의 형성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5. 결론

〈70mK〉는 개체들에 내재된 전개체적 실재성과 그들을 관통하는 집단성이 현대 기술 네트워크의 디지털 미학으로 구현, 전시된 미디어전시예술 작업이다. 그것은 현대의 디지털 기술과 방법론이 각 개체들과 만나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형성하는 노동 이상의 의미 생성 과정이다. "생명적 수준의 개체화된 존재자는 내적 자기 초월을 통해 정신적으로 개별화하면서 동시에 외적 참여를 통해 집단적 개체화를 구성할 때 개체초월적인 주체로 변환된다."[51] 현대 디지털 네트워크의 기술적 공간은 우리의 감각을 의식 영역으로 확대하고 각 개체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연결하고 있다. 〈70mK〉는 인터뷰라는 외적 참여와 전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런 디지털 가상공간,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이야기 했던 탈신체적 공간에서는 힘든 의미 생성 작업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구축된 거대한 디지털 신호로서의 비물질적 신호의 상으로 구조화 된 것이다. 총체성을 획득한 동시적인 형상과 정보의 체계로 새롭게 생성된 전시공간은 우리에게 개체화 과정을 사유하게 하고 집단성의 의미를 인식하게 한다. 그것은 특정 집단의 개체들 사이에 연결되는 전개체적 실재로서의 표상인 동시에 그 자체로도 하나의 개체로 위치한다. 〈70mK〉는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를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그 안에 담긴 관개체적 의미와 집단성의 가능성을 표상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영상으로 구조화 되어 전시 공간에 투영된 예술적인 상으로 기능하고 인터뷰를

51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198.

한 대규모의 타자들이 실질적인 개체화로서 관개체적 집단성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여기에 미학적인 전시예술작품으로서 〈70mK〉가 지닌 한계가 있다. 그러나 〈70mK〉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전시공간을 방문한 관객들이 정신적이고 집단적인 정보의 풍경을 통해 인식하는 정념적인 감정의 교감에서 비롯된다. 〈70mK〉가 그리고자 하는 의식의 지형도는 결국 특정 집단에 속한 개체들을 관통하는 동일하고 연합된 정신의 연결 지점에 있다. 그것은 이질적인 타자의 모습과 구술적 정보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형상의 특정한 공통점 등 연합된 전개체적 실재를 지각하는 것이다. 〈70mK〉는 전시공간을 통해 전개체적인 실재의 퍼텐셜리티를 인식하고 "심리적-집단적-기술적 개체화(관개체화)의 실현"[52]의 실질적인 시작과 가능성을 예비하는 무대로서 기능한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유들은 인간을 단일성 수준 이상에서 파악하는 사유이다. (…) 기술들은 '사회적 태도들을 구조적 요소들로 변형'시키고, 정치적 사유는 인간을 분석하는 대신 바탕의 질과 힘들에 인간을 들어가게 하면서 인간을 분류한다."[53] 〈70mK〉가 결국 집단적 개체화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통일 혹은 교육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사유를 이끌어 냄으로서 한민족 혹은 특정 집단을 가로지르는 동일성의 의식적 지형도를 지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70mK〉가 보여주는 개체초월적인 관계들의 지형도는 결국 정치적 사유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결국 권력관계와 시대의 윤리성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과 권력 사이의 진정한 매개는 개체적인 존재일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문화의 중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54] "문화는 대다수의 지배 받는 자들에 의해서 창안"[55]되고, 문화를 창안하는 주체로서의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변환작용들은 새로운 문화적 개체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 〈70mK〉는 시몽동이 사유한 현대 기술사회의에서의 개체화 과정이 지닌 의미를 잘 보여준

52 김화자, 「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56권, 2013, p.215.
53 위의 논문, p.220.
54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역, 그린비, 2011, p.216.
55 위의 책, p.216.

다. 대규모 인터뷰 작업이라는 특정한 행위의 구조와 일관된 동일성을 가진 원칙적 프레임화는 네트워크 행위로서 구조화되고 윤리적 실재성을 획득한다. 각 인터뷰 영상들은 개체들이 가진 차이와 퍼텐셜 에너지를 드러내고 새로운 생성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욕망을 확인하는 가능성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터뷰 작업은 시대의 자료로서 문화적, 민족적인 새로운 개체화의 연쇄 작용을 예비하는 역사성을 가진 아카이브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게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아카넷, 2017.

미하엘 할러, 『인터뷰 -저널리스트를 위한 핸드북』, 강태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비올라 팔켄베르크, 『인터뷰이를 위한 인터뷰의 이론과 실제』, 이현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스테이나 크베일, 『내면을 보는 눈 - 인터뷰』, 신경림 옮김, 하나의학사, 1998.

질베르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김재희 옮김, 그린비, 2011.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황수영 옮김, 서울: 그린비, 2017.

오광수, 『인터뷰』,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1.

황수영,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그린비, 2017.

Barthélémy Jean-Hugues, Life and Technology :beyond Simondon, Trans. Barnaby Norman, Meson Press, 2015.

Combes, Muriel, Gilbert Simondon and the Philosophy of the Transindividual, Trans. Thomas LaMarre, Cambridge, MIT Press, 2013.

Tuan, Yi-Fu,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

논문

김동현, 「모크 다큐멘터리의 다큐적 관습과 영화시간의 명시성 -포스카인드, 인터뷰의 시간 장면화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45권, 2013.

강승엽, 「TV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있어서 나레이션과 인터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4권, 2001.

강진숙, 「포스트휴먼 담론의 사유와 미학적-윤리적 역량 연구 –시몽동과 들뢰즈, 과타리의 인간-기계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3), 2018.

강태호, 「기억하기로서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블랙박스 독일연방공화국 Black Box BRD』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43권, 2009.

김재희,「물질과 생성: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중심으로」,『철학연구』93권, 2011.

김재희,「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범한철학』88권, 2018.

김현강,『매체 인터뷰의 담화 전략 연구 : 라디오의 시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위논문(박사), 2008.

김화자,「연구 논문 : 기술적 대상(L`objet technique)의 존재: 디지털 이미지의 존재론을 위한 예비적 고찰」,『미학 예술학 연구』32권, 2010.

김화자,「디지털 아트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탐색 - 시몽동의 개체화와 기술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철학과 현상학 연구』56권, 2013.

남승석,『에롤 모리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미학』, 서강대학교 학위논문(박사), 2017.

이주갑,『TV 휴먼다큐멘터리의 인터뷰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12.

이창재 심지현,「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인터뷰 미장센 사례 연구」,『애니메이션연구』14권 1호, 2018.

조국현,「텍스트의 매체성 -'인터뷰'의 매체적 변이형 고찰」,『텍스트언어학』41권, 2016.

조현준,「다큐멘터리에서의 인터뷰 활용 방식 연구」,『씨네포럼』16권, 2013.

기타

트랜스미디어연구소 http://tmi.or.kr

Abstract

The Meaning of Collective Relationships Becoming by Large-scale Interview Project - Focused on the media exhibition art 〈70mk〉 -

OH, Se Hyun
Dept. of Film, TV & Multimedia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crib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edia exhibition work 〈70mK〉, which aims to capture the topography of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large-scale interviews. 〈70mK〉 edits and organizes interview images of individual beings in mosaic-like layouts and forms, creating video exhibitions and holding exhibitions. The objects in the split frame show the continuity of differences that reveal their own thoughts and personalities. This is a synchronic and conscious collective typology in which the intrinsic nature of the individuals is embodied in a simultaneous and holistic image. Interview images reveal their own form as a actual being and convey the intrinsic nature of one's own as oral information. 〈70mK〉 constructs a new individualization by aesthetically structuring the forms and information of life individuals in the extension of a specific group. The beings in the frame are not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are looking straight ahead. it conveys to visitors their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as the preindividual reality. It is the repetitiv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heterogeneity and difference that each individual shows, and is a chain operation that includes collective identity behind it. 〈70mK〉 constructs the direct images and sounds of individual interviewee, creating a new form of information transfer called Video Art Exhibition. This makes metaphors and perceptions of the meaning and process of transindividual relationships and the meaning of psychic individuation and collective individuation.

This is an appropriate case to explain with modern technology and individualization of Gilbert Simondon thought together with the meaning of becoming and relation of individualization. The exhibition space constructed by 〈70mK〉 is an aesthetic methodology of the psychic and collective meaning and its relationship to a particular group of individuals through which they are connected. Simondon studied the meaning of the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and the meaning of becoming, and is a philosopher who positively considered the potential of modern technology. 〈70mK〉 is a new individual as structured and generated ethical reality mediated by modern technology mechanisms and network behaviors. It is an case of an aesthetic and practical methodology of how interviews function as 'transduction' in the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in which technology is cooperated. The direct images and sounds of 〈70mK〉 are systems in which the information of life individuals is carried, amplified, accumulated and transmitted. It is also a new individual as a psychic and collective landscape. It is a newly became exhibition art work through the multiple individualization, and is a representation of transindividual meanings and process. The media exhibition art of individualized metastable states leads to new relationships in which viewers perceive the same preindividual reality and feel affectivity. The exhibition space of 〈70mK〉 becomes a stage for preparing the actual possibility of the transindividual group beyond the representation of the semantic function.

Keywords 70mK, interview, Individuation, preindividual reality, Potential, transindividuality, Simondon

논문투고일: 2019. 5. 18 심사완료일: 2019. 6. 10 게재확정일: 2019. 7. 10